

호랑이 공포의 타순 ‘나비효과’ 톡톡



■ 나지완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26	79	0.316	17	25	1	1	5	22	0	15	5	20
5월	25	90	0.289	9	26	5	1	1	11	0	9	6	16
6월	20	72	0.306	16	22	8	0	4	13	0	6	3	16
7월	20	71	0.310	15	22	3	1	6	19	1	9	4	13
8월	21	71	0.338	10	24	2	0	6	18	0	8	2	23
9월이상	25	76	0.250	18	19	1	0	5	11	0	15	3	17

한국시리즈를 종료시켰다.

나지완은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았던 2009년부터 더 기분 좋은 우승이라고 말한다.

나지완은 “이번 우승이 더 기뻐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우리 동료들이 잘 버티고 이겨내고 맞은 순간이다. 또 2009년에는 막내로 정신없이 우승을 했었다. 이번에는 중고참 선수로 팀에서 기대하는 역할도 있고 욕심도 있었다. 부담도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2009년 리그를 대표하는 좌타자 최희섭을 앞에 두고 뒤에서 클린업트리오 역할을 했던 나지완은 올 시즌에는 또 다른 좌타자 최형우에 이어 공격의 허리를 이었다. 배울 점 많은 두 선배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야구에도 힘을 더 실을 수 있던 2009년과 올 시즌이다.

까다로운 4번 타자에 이어 나지완이 조용히 제 몫을 해주면서 피해갈 수 없는 KIA의 타순이 구축됐다.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꾸준하게 선수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기록을 쌓아 가고 있는 나지완은 시즌 마지막 시리즈에서 3할을 확정하면서 ‘3할 군단’에 이름을 넣었다. 2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

기면서 지난해 25개를 넘어 자신의 개인 최다 홈런 기록도 경신했다. 2008년 입단 후 타이거즈에서 터트린 홈런은 모두 172개. 94타점도 수확하면서 그는 ‘모범 FA’가 됐다.

지난겨울 나지완은 화제의 FA였다. 예상보다 빠른 발표 그리고 4년 총 40억원(계약금 16억원, 연봉 6억원)이라는 기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른 구단의 러브콜도 있었지만 나지완은 타이거즈 선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타이거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이룬 그는 지난 2일 결혼식도 올렸다.

9일 각별한 동료 안치홍과 윤석민이 나란히 결혼식을 올리는 만큼 나지완은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가한 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나지완은 “아곳에서 많은 곳을 이뤘다.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적응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타이거즈 선수로 꾸준하게 활약을 하며 이름을 남기고 싶다. 팀의 통합 우승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들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5〉 지명타자 나지완

4번 최형우 받치며 피해갈 수 없는 타순 완성

한국시리즈 3차전 9회 대타 홈런 ‘찬스맨’ 활약

개인 최다 시즌 27홈런 “타이거즈에 이름 남길 것”

8년 전인 2009년 프로야구는 KIA 타이거즈 나지완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해 정규시즌의 대장정과 한국시리즈의 숨 막힌 경기 모두 나지완의 방망이에 끝이 났다. 더 물러설 곳 없던 한국시리즈 7차전, 5-5로 맞선 9회말 1사에서 나지완은 SK 채병용의 직구를 공략해 잠실 외야를 갈랐다. 외야 좌측 상단을 때린 공은 2009 시즌의 종료를 알린 끝내기 홈런이었다.

한국시리즈 역사에 꼽는 명장면의 주인공 공이었던 대졸 2년차 나지완은 2017년 다시 한국시리즈 무대에 섰다. 그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어느새 팀의 중고참 선수가 된 그는 FA 신분으로 타이거즈에서의

두 번째 한국시리즈를 맞았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결정적인 홈런 두 방으로 MVP에 등극했던 그는 이번에는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다. 3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길여졌던 기다림은 9회까지 계속됐다.

4-3으로 쫓긴 9회 2사 2루가 나지완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감독님께서 찬스 때 나갈 것이라고 하셔서 잘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한 그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때리는 데 주력했다. 맞추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자신의 한국시리즈 세 번째 홈런이자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는 쉐키포였다. KIA는 이후 연승을 달리며 5차전에서



조성훈(롯데), 모범상은 신본기(롯데)에게 돌아갔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퓨처스리그 선수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구단별로 1명씩 선정됐으며, KIA에서는 포수 이정훈이 수상했다. 또 2차 드래프트로 삼성으로 이적한 이성곤(전 두산)을 포함해 이원재(NC), 남윤성(SK), 김인환(한화), 김주현(롯데), 김성환(삼성), 박세진(KT)이 퓨처스리그 선수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선수협은 스크린 야구 업체 다함께야구원과 공식 후원사 체결식도 진행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양현종 상복 터졌네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수상…임기영 기량발전상

‘통합 MVP’ 양현종(KIA·사진)이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가 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17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

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선수상은 KIA 양현종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 22년 만에 통째로 20승을 기록한 양현종은 한국시리즈에서는 2차전 완봉승에 이어 5차전 슈퍼 세이브까지 기록,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MVP가 됐다.

전역 후 맞은 첫 시즌에서 두 번의 완봉승 포함 8승을 수확하며 KIA 선발 한 축을 책임진 임기영은 기량발전상의 주인공이 됐다.

신인상은 이정후(넥센), 재기 선수상은

KBO 윈터미팅 11·12일 서울서 개최

2017 KBO 리그를 결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윈터미팅이 11·12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윈터미팅은 KBO 리그 활성화와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논의하고 KBO 리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국야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다.

11일에는 야구팬이 참석하는 KBO 리그 발전 포럼이 열린다.

포럼은 오전 10시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케팅과 스폰서, 중계권 판매를 담당하는 조 자누제브스키 전무이사의 강의로 시작된다. 그는 MLB 구단의 수익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인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뉴미디어와 소셜빅데이터를 통해 본 국내외 프로스포

츠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Genius Sports’ 런던 지사장인 벤 패터슨의 ‘국내외 스포츠도박·승부 조작 현황 및 적발 시스템’, 이종열 위원(SBS 스포츠 해설위원/KBO 육성위원)의 ‘KBO 리그 발전 방안-프리에이전트, 외국인선수 및 드래프트를 중심으로’, 차 의과대학 대학원 행정기 원장의 ‘유소년 야구 스마트 코칭가이드’, MBC 스포츠플러스 이석재 센터장의 ‘KBO 리그와 방송사의 상생 방안’ 등 4개의 공개 세션이 진행된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야구팬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일에는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의 프런트가 참가해 부문별 세부 안전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LPGA 2018 시즌 돌입

효성 챔피언십 8일 베트남서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 첫 대회가 8일 베트남에서 막을 올린다.

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인 효성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이 8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찌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6야드)에서 펼쳐진다.

KLPGA 투어 2018시즌은 이 대회로 문을 연 뒤 약 2개월간 휴식기를 갖고 2018년 3월에 재개할 예정이다. 총 102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는 KLPGA 투어 선수 80명과 베트남 골프협회 소속 등 외국 선수 16명, 추천 선수 6명 등이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놓고 경쟁한다.

대회가 열리는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은 2011년 12월에 만들어진 장소로 2013년 베트남 최고의 골프 코스로 뽑혔고, 2015년에도 베트남 언론 등의 투표로 정해진 최고 클럽하우스 상을 받는 등 베트남의 대표적인 명문 코스 가운데 한 곳이다.

대회를 개최하는 효성이 2007년 베트남 법인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에서 KLPGA 투어 대회를 열기로 했다.

2017시즌 KLPGA 투어에 ‘지현 열풍’을 불러일으킨 김지현(26·한화), 김

지현(26·롯데), 오지현(21), 이지현(21)이 모두 출전하고 2017시즌 최종전이었던 ADT캡스 챔피언십 우승자 지한솔(21)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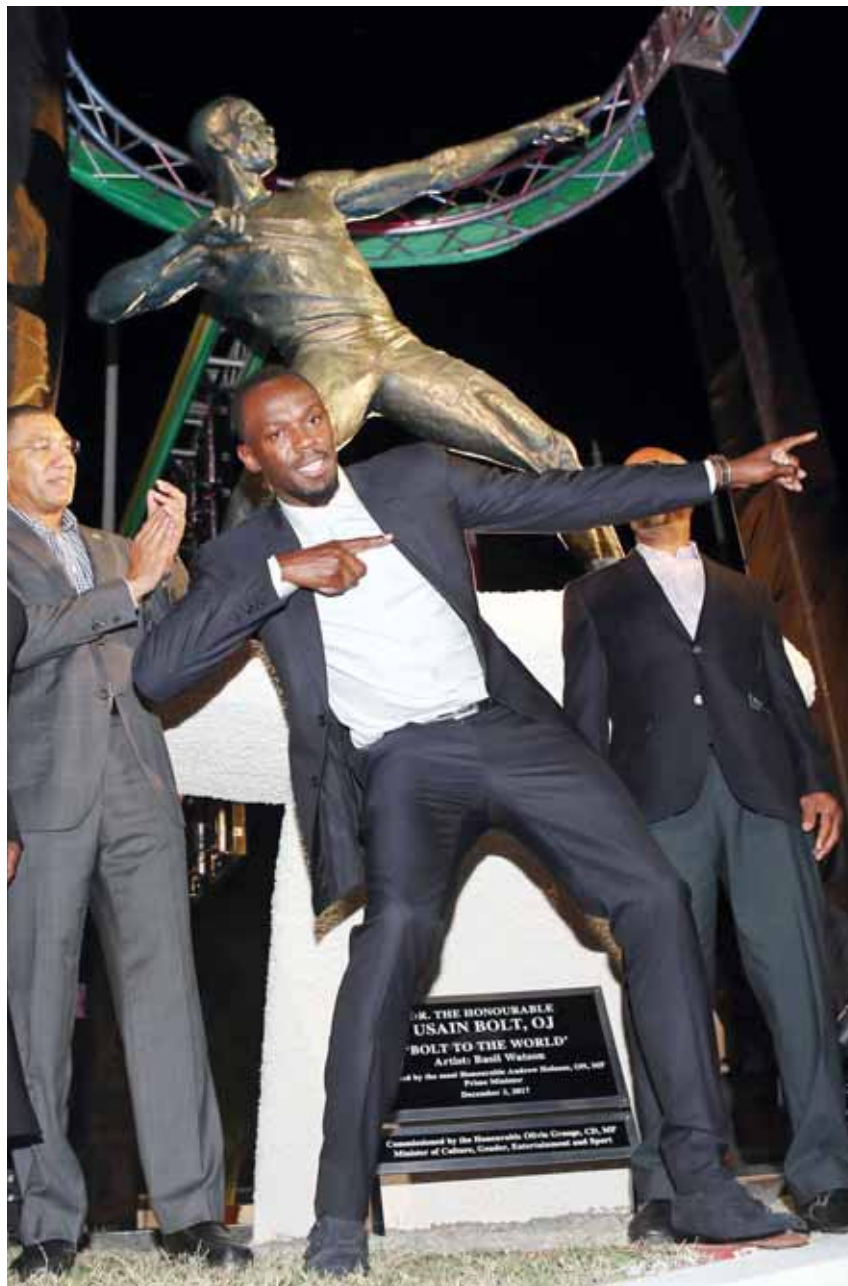
2017시즌 이 네 명의 ‘지현 씨’들은 7승을 합작했다.

3승을 거두며 상금 2위, 그린 적중률 1위 등의 성적을 낸 한화 소속 김지현은 “지난 시즌 좋은 성과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롯데 김지현 역시 “2018시즌 대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마지막 대회로 이 대회 좋은 성적으로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처음 경험하는 코스라 연습라운드를 통해 코스 상태를 잘 파악하고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또 한 명의 주목 대상은 최혜진(18)이다. 지난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을 거둔 최혜진은 프로로 전향한 뒤로는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이벤트 대회로 열린 LF 포인트 왕중왕전을 제패하며 프로로서 우승 기분을 내본 것이 전부다.

/연합뉴스



5일 자메이카 킹스턴의 국립경기장 앞에 세워진 볼트 동상. 우사인 볼트가 동상에서 표현된 몸짓과 똑같은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거리 황제’ 볼트 자메이카 킹스턴에 동상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단거리 황제’ 등극의 서막을 알린 자리에 ‘볼트 동상’이 자리했다.

자메이카 정부는 5일 킹스턴 국립경기장 앞에서 볼트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 참석한 볼트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AP, 로이터 통신과 인 터뷰에서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이 자리에서 맞았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며 “많은 분이 내가 승리한 장면을 더 기억해주시지만, 나도 많이 패했고 또 많이 아팠다.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볼트 동상’은 양팔로 비스듬하게 하늘을 찌르는 볼트 세리머니를 형상화했다.

볼트는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꼽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400m 계

주에서 함께 뛴 네스타 카터(자메이카)가 샘플 채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금메달 한 개가 박탈됐지만,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8개(100m·200m 3개, 400m 계주 2개)를 수확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11개를 따냈다. 은퇴 무대였던 2017 런던 세계선수권에서 100m 3위, 400m 계주 실력의 부진을 겪었지만 ‘단거리 황제’의 명성은 여전했다. 볼트가 세운 남자 100m 9초58, 200m 19초19의 세계 기록은 ‘불멸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볼트는 2002년 킹스턴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서 20초61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했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곳이다. 이 자리에 선 내 동상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